



## 아주포커스, 샤프 디지털인쇄기 · 복합기 국내 론칭 디지털인쇄기 2종 · 복합기 4종 보급

아주포커스(대표 김재수)가 지난 8월 23일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샤프 한국공식 론칭을 기념해 '디지털인쇄기 및 복합기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고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날 행사를 위해 일본에서 방문한 카타오카 히로시 일본 샤프 도큐먼트 솔루션 영업 부분부장은 “한국 인쇄시장이 작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에서도 한국의 A3 복합기 시장은 매년 6% 이상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등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5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에만 해도 9만대의 A3 컬러

복합기가 판매됐는데, 매년 5.7%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2015년에는 12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컬러복합기가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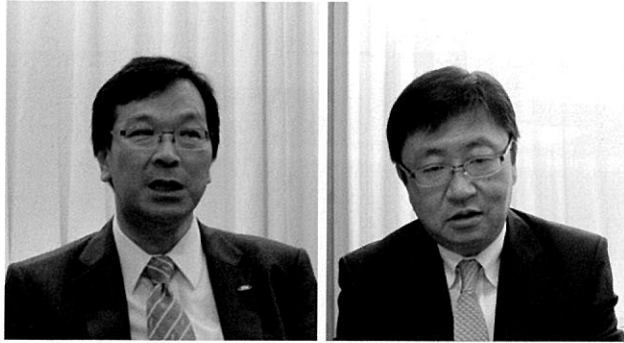
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2015년에는 4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시장은 주목할 만하지만 이미 코닥, 제록스, 신도리코, 코니카미놀타, 삼성 등 많은 업체들이 디지털인쇄기와 복합기를 공급하고 있다. 후발주자로 샤프가 뛰어난 만큼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 것이다”라며 “현재 샤프 도큐먼트 제품은 세계 누적 생산량만 1600만대를 달성했다. 아주포커스의 제안 덕분에 한국시장에 진출하게 됐는데, 전국 81개 아주포커스 대리점을 통해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우리 제품을 찾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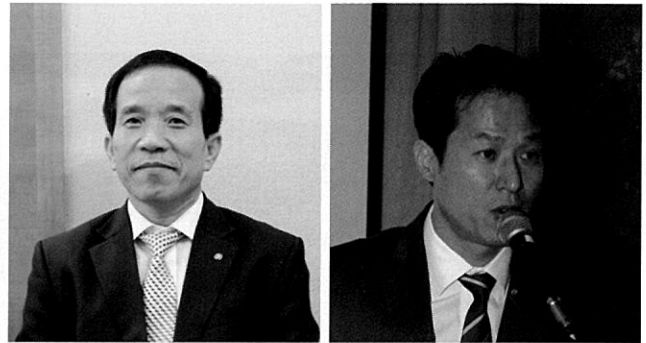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김재수 아주포커스 사장은 “오키 와이드사이즈 프린터는 기업용 복합기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B2B 시장 공략을 위해 샤프전자와 손을 잡았다”며 “샤프전자 복합기는 내구성과 사용자 편의성, 디자인, MPS 솔루션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조달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신제품



MX-5110N



카타오카 히로시 일본 샤프 영업 부분부장    마쯔타 테수로 일본 샤프 해외 영업부장



김재수 아주포커스 사장    국내인쇄시장 현황 및 아주포커스에 대해 설명한 정락훈 부장

품 발표회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경기가 좋지 않아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해보자라고 생각하는 대표들이 많은 것 같다. 오늘 하루에만 50여개 업체가 구매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샤프와 아주포커스는 2012년에 450대, 2013년에 3000대, 2014년에 55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체 시장의 7%인 84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폴라리스 MX 7040N·MX-5110N 등 6종 발표

샤프는 이번 신제품 발표회에서 총 6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우선 디지털인쇄기로는 ‘폴라리스 MX 7040N’ 과 ‘헤라클레스 MX-1204’ 등 2종을, 복합기로는 ‘MX-5110N’, ‘MX-3610N’, ‘MX-2310U’, ‘MX-M354N’ 등 4종을 선보였다. 6종의 제품 중 ‘MX-1204’와 ‘MX-M354N’은 흑백기종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네트워크 대기시 소비전력이 약 1W에 불과할 정도로 뛰어난 에너지효율을 자랑한다. 10.1인치 컬러 LCD 터치스크린이 장착돼 있어 조작이 간편하다. 화면에 간단한 탭, 제스처 또는 손가락을 이용한 슬라이드 사용으로 모든 문서, 기능 및 설정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카타오카 히로시 부분부장은 “출시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대형 액정화면이다. 10인치에 달하는 대형 액정화면 덕에

이용자가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서마감 및 페이지 레이아웃은 출력하기 전에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잘못된 출력물과 종이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폴라리스 MX 7040N’

‘폴라리스 MX 7040N’은 뛰어난 생산성과 이미지 품질, 직관적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강점이다.

‘중철’ 옵션을 통해서서는 자동으로 스테이플을 박고 구멍을 만들며, 자동으로 용지를 접을 수 있다. 추가 옵션인 트리밍 모듈로는 중철한 문서의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트리밍할 수 있다. ‘인serter’는 다른 종류의 용지를 급지할 수 있는 2개의 트레이가 있다. 하드커버 표지 또는 컬러용지를 사용해 문서를 고급스럽고 전문가처럼 마무리할 수 있다. 양면 싱글 패스 스캔장치’는 한 번의 이송으로 원본의 양면을 스캔할 수 있다. 대용량 문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스캔할 수 있다.

### ‘MX-5110N’

‘MX-5110N’은 이미징 프로세스를 완전히 개선해, 고성능 프로세서, 새로운 디벨로퍼, 2세대 Mycrostoner-HG를 결합하여 살아 숨쉬는 이미지 품질을 제공한다. 출력속도를 줄이지 않고도 600dpi의 복사와 선명한 1200dpi의 출력을 제공한다. Ⓞ

## 》 아주포커스(주)는

아주포커스는 1982년 풍납사무기기상사 설립을 시작으로 사무기기 판매 및 컴퓨터 시스템 개발과 컴퓨터 디지털 주변기기의 제조 및 수입을 통한 독자적인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왔다. 1996년 아주포커스(주)로 사명을 변경했고, 1998년 일본 올림푸스의 디지털카메라 한국총판으로서 국내시장에 디지털카메라를 소개하면서 디지털카메라의 보급 및 확산에 힘써왔다. 현재 오키 데이터 한국수입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탄탄한 유통망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아주포커스는 일본, 대만을 거점으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연구개발을 통해 수입,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업무를 열결하기 위한 국내 지사 및 전국 150여 대리점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8-7 복산빌딩 2층    TEL | 02-3471-0707    FAX | 02-3471-0708